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보는 기후와 기상에 대한 생각 이면우*

춘천교육대학교

The View of Climate and Weather in *Jibongyuseol* Written by Lee Su-Gwang

Lee, Myon U*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 Lee Su-Gwang, who was a scholar on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has written *Jibongyuseol*. These books (20 volumes) were a kind of encyclopedic book with a total of 3,435 items in 182 categ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is thoughts by checking records of climate and weather mentioned by Lee Su-Gwang in *Jibongyuseol*. He acquired knowledge about weather and climate from Chinese classics and books of currently Ming-China and added his own interpretations. He witnessed unusual weather events and had made a detail records. He pointed out the climate of foreign countries is different from that of Joseon. Lee Su-Gwang's interpretation of weather and climate showed a tendency not to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ism. However, for some phenomena of climate and weather, he added his own unique interpretation that provided evidence. Lee Su-Gwang could be evaluated as a pioneering scholar who collected articles and added interpretations on weather and climate.

Keywords : weather, climate, Lee Su-Gwang, *Jibongyuseol*

요약 :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수광은 총 20권의 <지봉유설>을 남겼다. <지봉유설>은 182개의 범주에서 총 3,435개의 하위 조목을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저서였다. 이 연구는 <지봉유설>에서 이수광이 언급한 기후와 기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여 그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수광은 중국 고전이나 명의 저서로부터 기후나 기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였다. 특이한 기상 현상을 목격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외국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다름을 지적했다. 이수광의 기후나 기상에 대해서 해석은 전통적인 유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현상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여 독특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수광은 기후와 기상에 대해 나름대로 기사를 수집하고 해석을 덧붙인 선구적인 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기후, 기상, 이수광, 지봉유설

1. 서론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다. 그가 1614년(광해군 6년)에 완성한 <지봉유설(芝峯類說)>(20권 10책)은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저술이었다. 제목에 사용된 “유설(類說)”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복잡한 지식을 편찬자의 견해를 강조하여 체계화한 유서(類書)에 속한다(강민구, 2011). 또한 <지봉유설>은 명물도수지학(名物度數之學)의 시초를 연 우리나라 최초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안대

회, 2004).

이수광은 3번에 걸쳐 중국 명(明)의 수도였던 연경(燕京, 현재의 북경)을 자신의 일행으로 다녀왔다. 그는 연경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적을 통해서 당시 중국에 소개된 서양문명의 한 단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조선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선각자였다. 예를 들면 예수회 소속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의 <천주실의, 天主實義>와 신부들이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가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이기도 했다(오상학, 2013).

*Corresponding author : 이면우
E-mail : leemaner@cnu.ac.kr

여기서는 먼저 지봉 이수광과 그의 저서인 <지봉유설>을 소개한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이수광과 그의 저술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언급한다. 다음으로 <지봉유설>에서 볼 수 있는 이수광의 자연관 중 일부인 기후 및 기상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후변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 기반의 교육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16~17세기에 살았던 지식인의 기후에 대한 생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지봉유설>에는 많은 판본이 전해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인문화사 발행 영인본(1970)을 기본을 택했다. 아울러 남만성(1994)이 을유문화사에서 번역한 책과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시한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 제시한 원문을 기본으로 사용했다.

II. 이수광의 <지봉유설> 소개와 선행연구 현황

이수광의 인물 소개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봉유설>의 내용이나 편찬의 특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물이 있다. 먼저 이수광의 약력을 작성하고 <지봉유설>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이수광과 <지봉유설>에 대한 선행연구 경향을 살펴본다.

1. 이수광의 약력과 평가

이수광은 태종의 6대손으로 명문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20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들어서면서 44년간 근무했다. 주로 승문원,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일했으며, 최종 직위는 이조판서였다.

그가 살던 시기는 임진왜란(선조 25년, 1592년), 정유재란(선조 30년, 1597년), 정묘호란(인조 5년, 1627년) 등과 같이 외침이 극심했었다. 또한 이수광은 기축옥사(선조 22년, 1589년), 계축옥사(광해군 5년, 1613년), 인조반정(광해군 15년, 1623년), 이괄(李适, 1587-1624)의 난(인조 2년, 1624년) 등과 같은 국내 정치의 상당한 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이수광의 가장 큰 이력은 중국 명나라에 3번이나 사신으로 간 사실에 있다. 여기서 그는 외국 사신을 접할 수 있었고, 많은 서적과 물건을 가져왔다. 당시 중국에 들어온 서양의 새로운 문명과 태국, 베트남 및

유구와 같은 외국의 사신들을 직접 만나 토론할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지봉유설>을 서술하는 데 큰 밑천이 된다.

그동안 이수광의 생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보고가 있었다(남만성, 1994; 류홍렬, 1970; 이경희, 2011; 이승녕, 1970; 최은숙, 1991). 또한 이수광이 사망한 다음에 편찬한 <지봉집>에는 장유(張維, 1587-1638)가 쓴 행장(行狀),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저술한 묘지명(墓誌銘),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 등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이수광의 연보를 작성하면 Table 1과 같다.

이수광의 인품이나 업적은 공식 기록인 <인조실록>에 기록된 졸기(卒記, 인조 6년(1628년) 12월 26일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조판서 이수광이 졸하였다. 수광의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芝峰)이다. 약관에 급제하여 청현직을 두루 거쳤다. 그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안남(베트남), 유구(일본 오키나와), 섬라(태국)의 사신들이 모두 그의 시문을 구하려고 했다. 그의 시를 자기 나라에 전하여 유포시켰다. 수광은 외모가 옷을 감당하지 못할 듯이 약했지만, 말은 엄청나게 과묵했다. 그리고 몸가짐은 단정하고 엄숙했다. 단아한 성품에 물러가기를 즐겨 했다. 벼슬을 제수하는 명이 내릴 때마다 반드시 머뭇거리며 사양했다. 벼슬살이 44년 동안 여러 변란을 겪었으나 출처와 언행에 조금도 흠결이 없었으니,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吏曹判書 李睟光卒. 睟光 字潤卿, 號芝峯. 弱冠擢第, 歷敷清顯. 其聘上國也, 安南, 琉球, 暹羅使臣, 皆求見其詩文. 至以其詩, 傳布於其國. 睟光貌若不勝衣, 言若不出口. 而繩檢甚嚴, 雅性恬退. 除命每下, 必逡巡辭避. 立朝四十四年, 屢經世變, 而出處言行, 無少玷類, 人莫不多之.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1628년) 12월 26일 기사]

이수광의 시문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에서도 유명했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다. 44년 동안의 관직 생활 역시 무난하게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2. <지봉유설>의 내용 및 특징

<지봉유설>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서(類書)로, 지봉이 1614년(광해군 6년)에 집필

Tabel 1. 이수광의 연보

서기	조선 연호	연령	주요 사건
1563	명종 18	1	2월. 경기도 장단(長湍)에서 아버지 이희검(李希儉)과 어머니 문화(文化) 류씨(柳氏)의 외아들로 태어남.
1576	선조 9	14	성균관(成均館) 입학.
1578	선조 11	16	진사과(進士科) 초시(初試) 합격.
1582	선조 15	20	진사과 합격.
1585	선조 18	23	별시 문과 합격,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로 관직 시작.
1588	선조 21	26	승문원 정자(正字),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승진.
1589	선조 22	27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기축옥사(己丑獄事).
1590	선조 23	28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호조(戶曹) 좌랑(佐郎), 병조(兵曹) 좌랑. 성절사(聖節使)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 방문. 황해도(黃海道) 도사(都事).
1591	선조 24	29	예조(禮曹) 좌랑, 정언, 호조 좌랑.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 사헌부 지평(持平). 이조(吏曹) 좌랑.
1592	선조 25	30	임진왜란(壬辰倭亂). 경상방어사(慶尙防禦使) 조경(趙敬, 1541-1609)의 종사관(從事官). 홍문관 수찬(修撰), 홍문관 부교리(副校理). 함경도 선유어사(宣諭御史).
1593	선조 26	31	사헌부 지평(持平), 홍문관 교리, 사간원 헌납(獻納). 병조 정랑(正郎), 교서관(校書館) 교리. 시강원(侍講院) 필선(弼善), 사헌부 장령(掌令),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 집의(執義).
1594	선조 27	32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대호군(大護軍) 겸 승문원 부제조(副提調).
1595	선조 28	33	우승지(右承旨), 병조 참지(參知).
1597	선조 30	35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정유재란(丁酉再亂). 분호조참의(分戶曹參議), 진위사(陳慰使)로 연경 방문: 안남(安南) 등 외국 사신과 필담.
1598	선조 31	36	우승지, 예조 참의(參議), 병조 참의, 좌승지(左承旨)
1599	선조 32	37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대사성. 병조 참의, 이조 참의.
1600	선조 33	38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1601	선조 34	39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병조 참의, 도사영위사(都司迎慰使).
1602	선조 35	40	이조 참의, 홍문관 부제학, 대사간(大司諫).
1603	선조 36	41	부제학, 이조 참의, 병조 참의, 대사성(4번째).
1604	선조 37	42	병조 참의.

Tabel 1. 계속

서기	조선 연호	연령	주요 사건
1605	선조 38	43	안변 부사(安邊 府使).
1607	선조 40	45	홍주 목사(洪州 牧使).
1609	광해군 원	47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병조 참의, 도승지(都承旨).
1610	광해군 2	48	예조 참판(參判) 겸 승문원 제조.
1611	광해군 3	49	진정부사(秦請副使)로 연경 방문: 유구(琉球), 섬라(暹羅) 사신과 필담.
1612	광해군 3	50	대사성, 대사간, 병조 참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홍문관 부제학.
1613	광해군 5	51	계축옥사(癸丑獄事). 사직.
1614	광해군 6	52	<지봉유설(芝峯類說)> 탈고.
1616	광해군 8	54	순천 부사(順天 府使).
1618	광해군 10	56	폐모 사건: 인목왕후를 대비에서 폐한 사건, <승평지(昇平誌)> 간행.
1619	광해군 11	57	임기 만료 후 수원(水原)에 은거.
1623	인조 1	62	도승지 겸 홍문관 제학, 대사간, 이조 참판, 공조 참판.
1624	인조 2	62	이괄(李适)의 난에 인조를 수행. 대사간,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 대사헌 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1625	인조 3	63	대사헌,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공조 판서. 조진무실차자(條陳懋實箭刺): 재이(災異)에 대한 구언 상소.
1627	인조 5	65	정묘호란(丁卯胡亂), 인조를 강화도로 모심. 대사헌.
1628	인조 6	66	참찬, 지중추부사, 홍문관 제학, 이조 판서(吏曹 判書). 12월 별세, 시호: 문간(文簡).
1633	인조 11	사후	두 아들(이성구, 이민구)이 <지봉집(芝峯集)>을 엮어 간행함.
1634	인조 12	사후	두 아들이 <지봉유설(芝峯類說)>을 간행함.

을 완성했다. 이 책은 1634년(인조 12년)에 이수광이 사망한 후 아들인 이성구(李聖求)와 이민구(李敏求)에 의해 간행되었다(최주희, 2018).

책의 내용은 하늘의 현상을 다룬 천문부(天文部)에서부터 짐승이나 벌레를 다루는 금충부(禽蟲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총 25부문으로 나누었으며, 182개 항목으로 총 3,435개의 하위 조목을 두었다. 방대한 이 저술의 제목과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온 저서였다. 예를 들면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도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지봉유설>을 근거로

울릉도가 우리 국토임을 주장했다.

남구만이 임금께 아뢰었다. 동래부사의 보고가 있었다. 왜인이 또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우리의 죽도에 들어오는 것을, 마땅히 금지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이 <지봉유설>【고 판서 이수광이 저술한 책, 지봉(芝峯)은 그의 호임】을 보니, 왜구들이 의죽도를 점거한 것입니다. 의죽도는 곧 울릉도입니다.

南九萬白上曰, 東萊府使報. 倭人又言, 朝鮮人入於吾竹島, 宜禁其更入也. 臣見 <芝峯類說>【故判書李睟光所著, 芝峯卽其號】. 倭奴占據礮竹島, 礮竹, 卽鬱陵島也.

Table 2. <지봉유설> 권수 및 세부 내용

권수	부분	세부 항목	비고
권1	천문(天文)	천(天), 일월(日月), 성(星), 풍운(風雲), 우설(雨雪), 홍(虹), 뇌(雷), 화(火)	8개 항목
	시령(時令)	세시(歲時), 절서(節序), 주야(晝夜)	3개 항목
	재이(災異)	재생(災眚), 기황(饑荒), 인이(人異), 물이(物異)	4개 항목
권2	지리(地理)	지(地), 산(山), 수(水), 해(海), 도(島), 정(井), 전(田)	7개 항목
	제국(諸國)	본국(本國), 외국(外國), 북로(北虜), 국도(國都), 군읍(郡邑), 풍속(風俗), 도로(道路)	7개 항목
권3	군도(君道)	제왕(帝王), 세대(世代), 정치(政治), 제도(制度), 법금(法禁), 용인(用人), 청간(聽諫), 상공(賞功)	8개 항목
	병정(兵政)	정벌(征伐), 병기(兵器), 병제(兵制), 구적(寇賊), 민호(民戶)	5개 항목
권4	관직(官職)	관제(官制), 제배(除拜), 상신(相臣), 장사(將師), 학사(學士), 사관(史官), 사신(使臣), 수령(守令), 과목(科目), 치사(致仕)	10개 항목
권5	유도(儒道)	학문(學問), 심학(心學), 과욕(寡慾), 초학(初學), 격언(格言)	5개 항목
	경서(經書)1	역(易), 시(詩), 서(書), 예기(禮記), 춘추(春秋), 주례(周禮)	6개 항목
권6	경서(經書)2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제전(諸傳), 제자(諸子), 제사(諸史)	7개 항목
권7	경서(經書)3	서적(書籍), 저술(著述)	2개 항목
	문자(文字)	문의(文義), 자의(字義), 자음(字音)	3개 항목
권8	문장(文章)1	문(文), 문체(文體), 문평(文評), 고문(古文), 사부(辭賦), 동문(東文), 문예(文藝)	7개 항목
권9	문장(文章)2	시(詩), 시법(詩法), 시평(詩評)	3개 항목
권10	문장(文章)3	어제시(御製詩), 고악부(古樂府), 고시(古詩), 당시(唐詩)	4개 항목
권11	문장(文章)4	당시(唐詩)	1개 항목
권12	문장(文章)5	당시(唐詩), 오대시(五代詩), 송시(宋詩), 원시(元詩), 명시(明詩)	5개 항목
권13	문장(文章)6	동시(東詩)	1개 항목
권14	문장(文章)7	방류(旁流), 규수(閨秀), 기첩(妓妾), 가사(歌詞), 여정(麗情), 애사(哀辭), 창화(唱和), 대구(對句), 시화(詩禍), 시참(詩讖), 시예(詩藝)	11개 항목
	인물(人物)	성현(聖賢), 사우(師友), 군자(君子), 소인(小人), 인재(人才), 절의(節義), 열녀(烈女), 부인(婦人), 척환(戚宦)	9개 항목
권15	성행(性行)	선악(善惡), 염결(廉潔), 검약(儉約), 염퇴(恬退), 음덕(陰德), 사치(奢侈), 탐색(貪嗇), 실절(失節)	8개 항목
	신형(身形)	용모(容貌), 심신(心神), 외형(外形), 모발(毛髮), 몽매(夢寐)	5개 항목
권16	어언(語言)	잡설(雜說), 속언(俗諺), 방언(方言), 류오(謬誤), 해학(諧謔)	5개 항목
권17	인사(人事)	혼취(昏娶), 생산(生産), 수오(壽夭), 질병(疾病), 사망(死亡), 상장(喪葬), 제사(祭祀), 교제(交際)	8개 항목
	잡사(雜事)	성족(姓族), 명호(名號), 수명(數名), 고실(故實), 이문(異聞), 징응(徵應)	6개 항목

Table 2. 계속

권수	부분	세부 항목	비고
권18	기예(技藝)	서(書), 화(畵), 방술(方術), 잡기(雜技), 음악(音樂), 기악(伎樂), 무격(巫覡)	7개 항목
	외도(外道)	선도(仙道), 수양(修養), 선문(禪門)	3개 항목
권19	궁실(宮室)	궁전(宮殿), 사묘(祠廟), 학교(學校), 사찰(寺刹), 성곽(城郭), 능묘(陵墓)	6개 항목
	복용(服用)	관건(冠巾), 의복(衣服), 조장(朝章), 채폐(綵幣), 기용(器用), 금보(金寶)	6개 항목
권20	식물(食物)	식이(食餌), 주(酒), 곡(穀), 채(菜), 과(果), 약(藥)	6개 항목
	훼목(卉木)	화(花), 초(草), 죽(竹), 목(木)	4개 항목
	금충(禽蟲)	조(鳥), 수(獸), 인개(鱗介), 충치(蟲豸)	4개 항목
합계	25 부분	83개 소주제	182 항목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1694년) 2월 23일 기사]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이 관련된 천주교 사건에서 <천주실의>와 같은 서적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지봉유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임금인 정조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저 그 책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이미 <지봉유설>에 그 학설을 비평한 말이 있다. 홍문관의 장서각에도 (이 책이) 역시 보관되어 있다. 근래에 서울 밖으로 유포되는 것을 그(이승훈)가 전했기 때문이라고 억지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우리 율법에 따라 한 등급 감하여 그의 직을 빼앗고 석방하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천천히 도모하라.

抵厥冊之出來我國者, 已屢百年. 自芝峰類說 已有評隲之語. 而弘文館藏書之閣, 亦有之. 近來京外之流播, 不可勒歸之於渠所歸傳. 本律減一等, 削其職放逐. 徐圖自效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1791년) 11월 8일 기사]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지봉유설>은 일본과의 영토 문제나 천주교 탄압 과정에서 중요한 전거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지봉유설>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았으며, 공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그동안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조선 중기에 출판된 <지봉유설>은 이후에 여러 분야의 서적에서 반드시 인용되는 중요한 서적이었다.

예를 들면,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의 <반계수록(磻溪隨錄)>,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목민심서(牧民心書)>,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등에서도 <지봉유설>을 인용했다. 특히 <지봉유설>에 언급된 외교 및 역사뿐만 아니라, 풍속이나 동식물과 같은 잡다한 사항까지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영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관찬 백과사전인 <국조보감(國朝寶鑑)>에서도 <지봉유설>에서 언급한 내용이 중요한 전거(典據)로 사용되었다.

사찬 역사서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동사강목(東史綱目)>, 이금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한치윤(韓致雍, 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譯史)> 등에서도 <지봉유설>을 근거로 역사적 사건을 다시 기록한 사례가 많다. <지봉유설>은 조선 후기에서도 중요한 저술로 평가받았으며, 연구 대상이 된 것임을 방증한다.

근대 이후의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대한 관심은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연구회(朝鮮研究會)는 일본어로 <원문 화역 대조 지봉유설(상, 하)>을 1916년과 1917년에 각각 출간했다. 조선연구회는 조선의 인문학을 연구하려는 목적에서 일본 학자들이 1910년에 설립한 단체였다(최혜주, 2018). 표면적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독립한 조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총독부 예하 기관

이나 다를 바 없었다.

<지봉유설>의 한글 완역은 남만성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경인문화사에서 1970년에 영인한 책을 저본으로 하여 1972년에 세계사상교양전집의 일환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 완역했다. 이어 1994년에는 다시 같은 출판사에서 <지봉유설>(상, 하)로 번역했다.

이수광과 <지봉유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전후에 나타났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경인문화사 출판 영인본에 <지봉유설>을 해제한 이승병(1970)의 글을 들 수 있다. 이만열(1975)은 지봉 이수광의 사회기강, 민생부국론, 국방론 등의 사상을 분석했다. 반윤홍(1975) 역시 이수광의 정치, 경제와 국방에 대한 관점을 다루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2003년에 진단학회에서 주최한 제30회 한국고전연구심포지엄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논문으로 다듬어져 이듬해 진단학보에 게재되었다. 김문식(2004)의 이수광의 자아 인식과 타자 인식, 최웅(2004)의 <지봉유설>에서 볼 수 있는 한문학적 업적, 한명기(2004)의 이수광의 대외인식, 안대회(2004)의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명물고증학의 전통, 이현희(2004)의 이수광의 국어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토론 자료(노명호 등, 2004)가 제시되어 이수광과 <지봉유설>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제공했다.

<지봉유설>의 판본은 최은숙(1991)의 연구가 있다. <지봉유설>은 현재 목판본 25종(한국 18종, 중국 1종, 일본 6종)과 필사본 1종, 활자본(조선연구회 간행)이 남아있으며, 1970년 경인문화사에서 발간한 영인본이 유통되고 있음을 밝혔다. 가장 많은 연구는 <지봉유설>의 문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였다. 예를 들면 <지봉유설>에 서술된 한시나 문학 및 경전에 관한 연구(박수천, 2016) 등이 그렇다.

특이한 연구로는 이수광의 세계 지리에 관한 분야를 들 수 있다. 이수광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서유럽까지 확장하는 시도를 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의 간략한 역사와 문화 및 풍토를 기록했다. 이수광의 세계 지리에 관해서는 노정식(1968)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봉유설>에서 다룬 여러 나라들의 지형이나 기후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소개한 것에 주목했다. 외국 중 베트남과 관련하여 특화된 연구도 상당

수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최병욱(2009)은 이수광이 연경 사절 시절에 베트남 사신 풍극관(馮克寬, 1528-1613)을 만나 교류한 사건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이수광이 살던 시대의 외국이나 도시의 명칭에 관해서는 오상학(2013)의 종합적인 연구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당시 외국명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수광은 당시 중국을 3번이나 방문했는데, 이때 만난 다른 나라 사신이나 서적을 통해서 외국에 대한 지식을 수집할 수 있었다(이경희, 2011). 이수광이 표기한 한자어 및 외국명에 대한 고증으로는 장보용과 손용택(2004)의 연구에 이어 이경희(2011), 정수일(2011)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이수광의 사상 중에서 자연과학 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수광이 서술한 화훼 부분을 통해서 이수광의 조경 식물에 관한 인식을 보고한 신상섭과 노재현(2009)의 논문이 있다. 강민구(2013)는 <지봉유설>을 포함하여 <성호사설>과 <송남잡지> 등의 유서류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의 화훼에 대한 인식을 보고했다. 이수광의 환경관에 대한 연구로는 김용희(2005)의 석사논문이 유일하다. 여기서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통해서 하늘, 기후 및 날씨, 생물 등에 관한 그의 관점을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상에서 이수광과 <지봉유설> 및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초기에는 이수광의 인물 소개나 <지봉유설>의 내용 소개가 주를 이룬다. 이어 이수광의 문학적인 서사나 세계 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이수광의 기후에 관한 생각

기후란 한 지역에서 장기간 대기의 평균 상태로 정의된다. 이에 반하여 기상(날씨)은 대기 중에 일어나는 종합적인 상태를 말한다(김연옥, 1998). 그렇기에 기상과 기후는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지봉유설>에서는 기상이나 기후에 관한 이수광이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가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권1의 천문부, 시령부, 재이부, 권2의 제국부, 권20의 금충부 등이다.

1. 기상 및 기후에 대한 일반론

기상 및 기후에 대한 일반론은 권1의 천문부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하늘, 태양과 달, 별, 바람과 구름, 비와 눈, 무지개, 번개, 불 등의 항목이 있다. 이중 기상과 기후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상이나 기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지구의 위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일 것이다. 실제로 이수광은 이러한 점에 주목했다. 기온은 바로 태양에너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는 당시 도교 계통의 고전인 <열자(列子)>의 서술 내용과 주일용(周日用, 생물년 불명)의 언급을 근거로 들어 인용했다.

<열자>에서 말했다. 공자는 어린아이를 보고 나서, 태양이 멀고 가까운 것을 분별했다. 송(宋)나라 주일용이 말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있으면 뜨겁다. 뜨거운 기온이 바로 아래로 내리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불기운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해가 양쪽 가에 있을 때, 그 뜨겁고 서늘함은 모두 밝혀낼 수 있다. 해가 처음 나올 때는 가깝고, 하늘 가운데에 오면 당연히 멀어진다.

列子言，孔子見小兒，辨日遠近云云。宋周日用曰，日當中而熱者，炎氣直下也。譬猶火氣直上。在兩旁者，其炎涼可悉。足明初出近而當中遠矣。 [<지봉유설> 권1, 천문(天文)부, 일월(日月) 항목]

<열자>에서 인용한 이야기는 항탁(項橐, 전설 속의 인물)과 공자가 대화를 나누었다는 유명한 고사를 언급한 것이다. 아침에는 해가 크게 보이므로 가깝다는 주장과, 반면에 아침에는 기온이 낮으므로 해가 멀다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을, 공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해가 바로 위에서 쏘이면 기온이 올라가고 비스듬하게 쏘이면 기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이수광은 나름대로 설명했다. 주일용은 송 시대의 활약했던 박물학자로 알려졌다.

바람의 세기와 지속시간의 관계를 나름대로 이해한 대목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상 현상은 시간 규모가 클수록 공간 규모도 커진다. 즉, 지속시간이 커지면 그러한 현상이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이 커지는 것이다. 여기서 규모(scale)란 기상 현상이 유지되는 시간이나 공간의 고유한 크기를 말한다(한국지구과학회, 2009).

<소설>에서 말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울리지 못하는 것은 40 리, 큰 가지를 꺾는 것은 400 리, 큰 나무를 꺾는 것은 5,000 리에 미친다. 사흘 낮 사흘

밤을 불면 온 천하에 모두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를 낮 이들 밤을 불면 천하의 반에 바람이 부는 것이다. 하루 낮밤을 불면 그 바람은 만 리를 간다. 내가 생각하건데, 비단 바람뿐이 아니다. 비 또한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

小說曰，風不鳴條者四十里，折大技者四百里，折大木者五千里。三日三夕者，天下盡風。二日二夕者，天下半風。一日一夜者，其風行萬里。余意非但風也。雨亦宜然。 [<지봉유설> 권1, 천문부, 풍운(風雲) 항목]

여기서 인용한 <소설>은 원말 명초에 발간된 백과사전류의 서적이었다. 당시 1 리는 오늘날의 거리로 약 4 km에 해당한다. 바람의 세기인 풍속은 나뭇가지의 모양을 설명했다. 또한 시간의 규모에 따라 바람이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비도 같은 현상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 대목의 원문을 목판본으로 소개하면 Fig. 1과 같다.

한편, 계절에 따라 바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특이한 점은 전해오는 이야기를 바닷사람이 경험한 사실과 비교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이다. 이수광의 지식의 출처가 경험과 견문을 통한 것에서 나왔음을 보여준다.

옛말에 이르기를, 봄바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여름 바람은 공중을 옆으로 불어간다. 가을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겨울바람은 땅에 붙어서 간다고 했다. 내가 바다로 다니는 사람에게 들으니 이 말이 진실로 옳다고 한다.

古語曰，春之風，自下而升上。夏之風，橫行於空中。秋之風，自上而降下。冬之風，着土而行。余聞諸海上人，則此言良是。 [<지봉유설> 권1, 천문부, 풍운 항목]

위의 인용문은 계절풍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기온에 따라 공기가 이동하는 상태가 다름을 지적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바람이 위로 평행하게 불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바람이 아래로 땅 가까이에서 분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공기의 온도와 밀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어 계절풍의 방향과 무역과의 관계를 <엄주교(兪州稿)>를 인용하여 서술했다. 또한 선조 시대 학자인 조완벽(趙完璧, 생물년 미상)의 사례도 인용했다.

<엄주교>에서 말했다. 왜의 선박이 오는 일은 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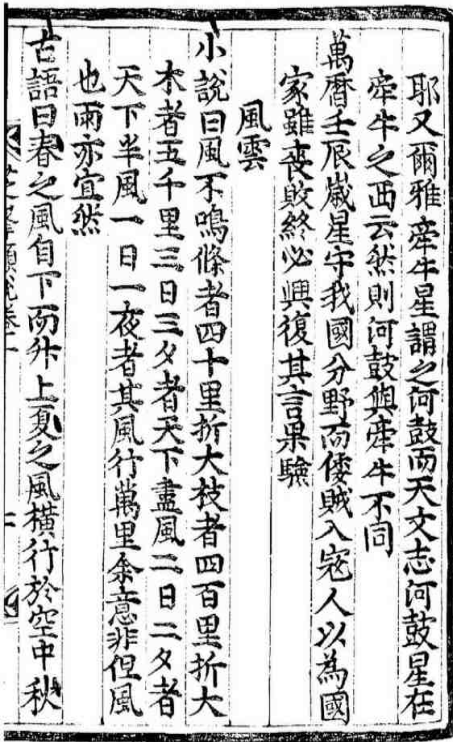


Fig. 1. <지봉유설> 목판본 권1. 천문부, 풍운 부분의 서술 형식 및 내용

청명(양력 4월 5일경) 이후에 있다. 이보다 앞서면 바람과 날씨의 변화가 많다, 청명 이후가 되면 바야흐로 북동풍이 많으며 또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 (음력) 5월을 지나면 바람이 남쪽에서 오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는 것이 불리하다. 중량(음력 9월 9일) 이후의 바람은 또한 북동풍이 된다. (음력) 10월을 지나면 바람은 북서쪽에서 온다. 그런 까닭에 바다를 지키는 데는 3, 4, 5월을 크게 묻고[大訊], 9, 10월을 작게 묻는다[小訊]고 했다. 들으니 조완벽도 또한 말했다. 큰 바다가운데서 배는 바람의 힘에 편승해 간다. 그런 까닭에 매년 3, 4, 5월에는 갈 수 있다. 6월 이후에는 행선할 수 없다.

兪州稿曰, 倭舶之來, 恒在清明之後. 前乎此, 風候不常. 清明後方多東北風, 且積久不變. 過五月, 風自南來, 不利於行. 重陽後風亦有東北者. 過十月, 風自西北來. 故防海者, 以三四五月爲大訊. 九十月爲小訊. 聞趙完璧亦言, 大海中舟行以風便. 故每三四五月可行. 六月以後, 不得行舟云是也. [*지봉유설*] 권1. 천문부, 풍운 항목]

<엄주고(兪州稿)>는 명나라의 문신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이 지은 책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완벽은 정유재란(선조 30년, 1597년) 때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일본 상인의 노예로 베트남[安南], 필리핀[呂宋], 오키나와[琉球國] 등을 다녀온 경험을 한 이색적인 인물이었다. 이후 회담 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여우길(呂祐吉, 1567-1632)에 의해 조선으로 귀환한 사람이었다(정규식, 2018). 당시 이수광은 <조완벽전(趙完璧傳)>을 서술하여 그가 경험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본 내용을 기록했다. 정조 시대에 편찬된 <국조인물고>에 실린 “조완벽전”의 필사 내용은 Fig. 2와 같다.

Fig. 2의 기사에서는 계절풍에 의하여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지구 규모의 기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엄주고>라는 책과 조완벽의 경험담을 통해 실증적으로 서술했다. 청명 이후에는 여름철의 계절풍인 남동풍이 강해지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또는 중국)로 오기가 쉬울 것이다. 아울러 10월이 되면 북서풍으로 방향이 바뀐다. 그러므로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일본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오기 힘든 계절이 되었음을 서술했다.

한편으로 이수광은 전통적인 고전을 그대로 인용하고 과학적인 내용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복고적인 태도도 보인다. 예를 들면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주례(周禮)>의 인용문을 들어 그대로 해석했다.

<주례>의 보장씨는 구름의 다섯 가지 색깔로, 길흉, 수해와 가뭄, 풍년과 흉년의 징조를 미리 알았다



Fig. 2. <국조인물고>에 서술된 이수광의 “조완벽전” 부분

고 했다. 그 주(註)에 말하기를,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에, 구름의 기운을 관찰한다. 푸른 기운은 병충해를, 흰 기운은 상(喪)을 뜻했다. 붉으면 전쟁이 날 징조이고, 검은면 수해가 날 징조이며, 누르면 풍년이 들 징조다.

周禮保障氏，以五雲之物，卜吉凶水旱豐衰之祲象。註，二分二至，觀雲氣。青爲蟲，白爲喪，赤爲兵荒，黑爲水，黃爲豐。 [〈지봉유설〉 권1. 천문부, 풍운 항목]

반면에 <소설>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과학적인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즉, 인용문에 대하여 자신이 관측하거나 경험한 결과를 토대로 인용한 책의 내용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소설>에 말했다. 상순의 달이 바뀌는 날을 초하루라고 한다. 초하루에 비가 오면 그달에는 비가 많이 온다. 25일에 비가 오면 오래도록 비가 온다. 또 말하기를. 4월 초하루에 비가 오면 가문다. 그러나 측험과 맞지 않다.

小說曰，上旬交月，謂朔日也。雨則主月內多雨。二十五日有雨則主久雨。又曰，四月朔雨則主旱。然不盡驗也。 [〈지봉유설〉 권1. 천문부, 우설(雨雪) 항목]

비나 눈이 오지 않는 경우, 한해 농사에 큰 지장이 있다. 이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기우제나 기설제를 지낸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광은 전통 유교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나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것은 가뭄이 드는 것과 같다. 옛날에는 기설제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퇴계(退溪)나 율곡(栗谷)의 문집에는 기설제문이 들어있다. 들으니 중국에서도 역시 그러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년연간(萬曆年間, 1573-1620)에 장거정이 눈이 온 것을 축하하는 표문이 있다, 지금은 날씨가 개기를 빌거나 비 오기를 빌어서 소원대로 되었을 때 보답하는 제사가 없으니,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夏不雨冬不雪，爲旱一也。舊有新雪祭。故李退溪及栗谷集，有新雪祭文。聞皇朝亦行之。故萬曆中，張居正有賀雪表。..... 今祈晴得雨而無報祀，蓋亦闕典云。 [〈지봉유설〉 권1. 천문부, 우설 항목]

장거정(張居正, 1525-1582)은 명의 만력제를 동궁

시절에 가르쳤던 선생이었다. 만력제가 즉위하자 섭정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펼쳤다. 퇴계나 율곡 선생의 문집에도 기설제를 지낸 문장이 있으므로 기설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로 본 것이다. 다만 제사를 지낸 후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이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수광이 1605년 안변 부사로 임명받아 임지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 이에 지봉은 제문을 지어 황룡산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그 날로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장유가 쓴 행장, 김상헌이 쓴 묘지명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가 지은 기우제문 3편은 <지봉집> 권21 <잡저>에 전해온다.

을사년(1605년) 봄에 임지에 도착했다. 여름에 가뭄이 들었는데, 공이 기우제를 지내자 그날로 응답이 왔다.

乙巳春，抵任。夏旱，公禱雨即應。 [〈지봉집>, 부록(附錄) 권1, 행장(行狀) 장유(張維) 기사]

그해 여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 공이 제문을 지어 몸소 기우제를 지내자 그 날 바로 큰 비가 내렸다. 其年夏旱甚。公操文躬禱，即日大雨。 [〈지봉집>, 부록 권1, 묘지명(墓誌銘) 김상헌(金尙憲) 기사]

한편, 지봉은 중국 유명인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과학적인 면모도 보였다. 예를 들면 장거정이 언급한 우레(雷), 송(宋)의 심괄(沈括, 1031-1095)이 언급한 무지개(虹), 당시(唐詩)에서 볼 수 있는 가뭄과 홍수의 예측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장태옥[장거정]이 말했다. 우레[雷]라는 글자를 옛 형태는 우(雨)자 아래에 회(回)자를 써서 용과 뱀이 구불구불 서린 형상으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 총포의 화약이 한번 작동하면 쇠나 돌이 타면서 깨진다. 우레가 불의 정기를 얻은 것이다. 그러한 기운이, 돌에 부딪히면 깨지고, 나무에 닿으면 부러지고, 가옥을 치면 훼손된다. 그 기운이 물체에 닿으면 즉시 죽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이나 가축이 벼락에 죽은 것은 모두 몸이 타버려서 무늬가 부적처럼 된다. 이것은 불의 기운이 태운 것이다. 죽은 자가 우연히 벼락과 서로 만난 것이지, 벼락이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 간혹 벼락에 가까이 있었는데 다치지 않은 자는, 그 화독

이 몸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미루어 말한다면, 우레라는 것은 음양이 서로 치는 기운을 이룬 것이다. 죄지는 자를 벌을 주어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억설이다.

張太嶽曰。雷字古字作回，爲龍蛇蟠屈之狀。……如銃砲火藥一發，金石皆炸裂。雷得火之精，故其氣也，在石則裂，在木則折，在屋則毀。其氣着物，無不立死。人畜之死於雷，皆焦爛，文如符篆。是火氣之所灼也。其死者偶與雷相值，非雷擊之也。有近之而不傷者，其火毒偶未着身也。推此言之，則謂雷爲陰陽擊搏之氣，與罰殛有罪云者，悉臆說也。 [<지봉유설> 권1. 천문부, 우레[雷] 항목]

심존중(심괄)은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 말했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무지개는 도랑물을 마실 줄 안다는데 믿을만한 것 같다. 일찍이 비가 갠 뒤에 무지개를 보니 양쪽 머리가 다 도랑물[澗] 속에 드리워 있었다. …… 나는 무지개가 도랑물을 마실 줄 안다는 것에 대해, 무지개가 능히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아마 물속에 물건이 있어서 기를 뿜어서 형상을 이루는데, 신기루나 바다 위의 도시처럼 보이는 현상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沈存中筆談。世傳虹能飲澗信然。嘗雨霽，見虹兩頭皆垂澗中。……余謂虹能飲澗，非虹能飲。疑水中有物嘯氣成形，如蜃樓海市之類耳 [<지봉유설> 권1. 천문부, 무지개[虹] 항목]

당시(唐詩)에서 말한다. 농가에는 오행이 없으므로, 수해나 가뭄을 개구리 우는 소리로 점을 친다. 살펴보면, (음력) 3월 초 상사일(上巳日)에 개구리 소리를 듣고 가뭄과 홍수를 점했다. 그러므로 속담에서 이른다. 개구리가 울지만 병어리가 되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대가 낮은 눈에 좋고, 개구리가 울어 소리가 나면 눈에 배를 부리기 좋다.

唐詩曰，田家無五行，水旱占蛙聲。按三月初三上巳日，聽蛙聲占水旱。故諺云，田鷄叫得啞，低田好稻把。田鷄叫得響，田內好牽漿。 [<지봉유설> 권1. 시령(時令)부, 절서(節序) 항목]

우레는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만나는 것이지, 죄인을 벌주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지개는 신기루와 비슷한 현상으로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생긴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로 가뭄과 홍수를 예측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크면 물이 많은 것이니 비가 많이 올 것

을 예측한 것이고,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거의 없으면 물이 적으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수광은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중국인의 저서나 고전의 내용을 근거로 이용했다. 이를 근거로 나름의 경험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과학적인 해석을 덧붙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다만 기후제에 대해서는 천인상응(天人相應) 또는 천지상관(天地相關)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의 정치적 관점(정해왕, 2013)을 유지했다.

2. 특이한 기상 현상

이수광은 생전에 특이한 자연현상을 목격한 경험을 <지봉유설> 권1 재이(災異)에 많은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일본의 침략을 경험했던 저자로서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전조 현상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전조 현상으로 혜성 출현, 별뿔별과 운석, 적조 현상, 큰 바다 거북이의 출현, 개미의 싸움 등이었다.

만력 정축년(선조 10년, 1577년)에 치우기가 미수(尾宿)와 기수(箕宿)에 나타났다. 그곳은 연(燕)의 분야로 우리나라와 같은 분야이다. 그 길이가 하늘 끝까지 뻗었으며, 여러 달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이 해에 일본 왜의 추장 평수길(平秀吉, 豊臣秀吉을 말함)이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꾸몄다. 그 뒤 15년이 지난 임진년에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함락시켰다. 중국이 천하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정벌한 지 7년 만에 비로소 평정하였다. 무릇 이 작은 도깨비 같은 오랑캐가 바다 섬 안에서 날뛰었다. 반역하려는 분위기가 잠시 있었음이 이와같이 하늘에 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려워 탄식할만하다.

萬曆丁丑，蚩尤旗出尾箕星。乃燕分，與我國同分野。其長竟天，累月不滅。是歲日本倭酋平秀吉，始有犯順之謀。後十五歲壬辰，寇陷我國。皇朝動天下之兵，征勦七年而始定。夫以叢爾小醜，跳梁海島中。逆節乍萌，而象見于上如此。吁可畏哉。 [<지봉유설> 권1. 재이(災異)부, 재생(災眚) 항목]

무자년(선조 11년, 1588년) 6월 온성 땅에 밤 10시 경[二更]에 사람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의 불덩어리가 날아서 북쪽을 향했다. 천둥과 번개가 이에 따르니 열음이 터지는 소리와 같았다. 4년이 지난 뒤에 왜구가 함부로 육진(六鎭)을 쳐들어왔으니, 이것은 기(氣)가 먼저 도착한 것이다.

戊子六月，穩城地，二更有火塊如人佩弓矢，飛而向北。震雷隨之，如冰拆之聲。越四年，倭寇闖入六鎮。是氣之先至者也。 [<지봉유설> 권1. 재이부, 재생 항목]

임진년(선조 25년, 1592년) 이전에 심지어 건원릉(健元陵)의 능침이 울고, 한강 물이 붉어지고, 치우기가 하늘에 뿌치고, 큰 거북이 바다에서 나오는 등의 변이가 있었는데, 모두 기록할 수 없다.

壬辰以前 至於健元陵寢鳴，漢水赤，蚩尤互天，穹龜出海，此等變異，不可悉記。 [<지봉유설> 권1. 재이부, 재생 항목]

신묘년(선조 24년, 1591년) 여름에 삼척, 양양, 울진 등의 고을에 개미가 온통 바다를 덮고 나와 해안에 가득히 퍼져서는 전투하는 형상을 보인 일이 있었다. 또 서울의 류밀(柳謐)의 집 뜰 앞의 5, 6간이나 되는 땅에 검정 개미가 가득 퍼져서, 혹은 머리가 끊기고 혹은 허리가 끊겨서 죽었으니 그 수를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그 징조였던가.

辛卯年夏，三陟襄陽蔚珍等邑，有蟻蟲蔽海而出，瀾漫海岸，如戰鬪之狀。又京中柳謐家庭前五六間地，黑蟻遍布，或斬頭或斬腰而死者，不記其數。翌年而倭寇至，此其兆歟。 [<지봉유설> 권1. 재이부, 물이(物異) 항목]

1577년에 나타난 치우기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Tycho Brahe, 1546-1601)가 관측한 혜성으로 유명하다. 1558년 별뚱뚱 기록은, 그 내용으로 보아 땅에 떨어진 운석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능침이 울고 적조 현상이 생기고 큰 거북이가 출현하는 등의 재이가 있었다. 1591년 신묘년 기사에 나오는 류밀(柳謐, 1534-?)은 명종 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으로 당시 이수광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수광은 직접 경험한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문한 내용도 기록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 우리가 승전할 것이라는 징조로 햇무리나 쌍무지개와 같은 자연현상을 찾기 기록했다. 다만 이수광은 과학적인 해석보다는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을 미리 알린다는 전통적인 유교의 관점을 택했다.

계사년(선조 26년 1593년), 정월 초하루에 세 줄기

흰 기운이 북서쪽 하늘에 뿌치어 가로 방향으로 태양을 관통했다. 곁에는 쌍무지개가 있는데 둘러싼 무지개가 두 겹이었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적을 이길 현상이라고 했다. 7일을 지난 뒤에 명나라의 군사가 평양에서 승리하였다.

癸巳元日，白氣三道，自西北互天，橫貫太陽，傍有雙虹圍暈二匝。識者以爲勝敵之象。越七日，天兵克平壤。 [<지봉유설> 권1. 재이부, 재생 항목]

이수광은 다른 사람이 목격한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강항이 말했다.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 하늘에서 며칠 동안 그치지 않고 털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근년인 무신·기유년 사이(1608년-1609년)에 하늘에서 나무 열매 같은 종류가 비처럼 내린 적이 있었다. 어떤 징조인지 알지 못하겠다.

姜沆言，在倭中，目見天雨毛連日不止。頃在戊申己酉年間，天雨木實者屢矣，未知何應也。 [<지봉유설> 권1. 재이부, 재생 항목]

강항(姜沆, 1567-1618)은 의병장으로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가 억류(1597년-1600년)되었던 사람이다. 이때 그는 일본에 성리학을 전했다고 한다. 강항이 일본에서 본 특이한 현상과 더불어 이수광이 직접 본 이상 기상 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털이나 나무 열매가 비처럼 내린 현상은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지상의 물건이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에 비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수광은 안변 부사로 재직하던 1605년에 홍수를 목격했다. 하루 동안에 엄청난 비가 왔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

만력 을사년(선조 38년, 1605년) 내가 안변의 수령으로 있었다. 7월 19일에 오후 6시경(酉時)부터 소나기가 쏟아붓듯이 내렸다. 사나운 바람이 가옥을 파괴했다. 오후 10시경(二更)에 이르러 큰물이 성안으로 들어왔다. 가득 찬 물이 바다 같았다. 물가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고을 안의 여염집들은 거의 다 물속에 빠졌다. 사람과 가축의 떠내려간 것이 매우 많았고, 온 마을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곳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친 뒤에 보니, 소·말·닭·개·뱀·산새·들짐승, 물에 사는 동물들이 물가 혹은 바닷가에 무

더기로 죽어 마치 산과 같았다. 썩는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산은 무너지고 언덕은 허물어졌고, 하천과 들판은 변하고 옮겨졌다. 모래와 돌은 들판을 덮어서 남은 곡식 이삭이라고는 없었다. 산중의 큰 나무까지도 모두 뿌리가 뽑히어 덕원(지금의 원산)의 경계까지 떠내려갔다. 수십 리를 메워 막아 놓아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었다. 한 달 남짓 불로 태워 겨우 없었다. 이것은 개벽 이래 일찍이 없었던 큰 재앙이었다. 어떤 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바다가 뒤집혀서 재변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萬曆乙巳, 余守安邊. 七月十九日, 自酉時急雨如注. 簾風裂屋. 至二更大水入城. 瀾滿如海. 不見涯際. 境內閭家殆盡沈沒. 人畜漂去者甚多. 至有全村無一遺者. 翌朝雨歇, 則牛馬雞犬蛇虺山禽野獸水族之類, 堆死於洲渚或海濱者如山. 而臭腐, 人不敢近. 山崩岸塌, 川原變遷. 沙石蔽野, 野無餘穗. 至於山中大木, 亦皆根拔, 浮下於德源之境. 填塞數十里, 人不通行. 燒火月餘方盡. 是開闢以來未有之大變也. 或疑非天降雨, 乃海翻而為災云. [<지봉유설> 권1. 재이부, 재생 항목]

한여름에 우박과 서리가 내리는 특이한 기상도 언급했다. 지금의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 오리 알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 함경도에서는 서리와 눈이 내리는 한파가 갑자기 왔음을 서술하고 있다.

선왕 정미년(선조 40년 1607년) 6월에 호서와 영남에 우박이 내렸다. 크기가 집오리 알 정도였다. 집에서 키우는 새를 으스르뜨렸고, 떨어져 초목을 죽게 했다. 함경남도에는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내렸다. 날씨의 차고 모질기가 겨울과 같았다. 10월에는 혜성이 삼태성 사이에 나타났다. 꼬리는 문창성과 북두칠성을 가리켰다. 길이는 10여 자였고, 빛은 창백하였다. 다음 달에나 비로소 사라졌다. 다음 해에 임금이 승하하였다. 이것이 그 징험이었다.

先王丁未六月, 湖西及嶺南. 雨雹大如鴨卵. 壓碎禽鳥, 隕殺草木. 咸鏡南道, 雨雹霜雪. 日候寒凜如冬. 十月彗星見三台之間, 尾指文昌及北斗魁, 長十餘尺色蒼白. 逾月始滅. 明年上昇暹, 是其驗也. [<지봉유설> 권1. 재이부, 재생 항목]

1607년 이수광이 목격한 혜성은 유명한 헬리혜성을 말한다. 혜성이 나타났던 해에 커다란 우박이 내

렸고, 또한 북쪽 지역에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등의 기상 이변을 상세하게 서술한 기사였다. 이러한 전조가 모두 선조 임금의 죽음을 미리 알린 징조라고 해석했다.

이수광이 직접 목격한 기상 현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논의를 한 것이 있다. 용오름 현상(작은 토네이도)을 목격한 것이다.

만력 을사년(선조 38년, 1605년)에 여산(礪山, 전북 익산 지역) 땅에 흰 용이 나타났다. 이 용은 강에서 나와서 어느 촌의 집에 이르렀다. 이때는 대낮인데다가 구름이 한 점도 없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비가 사나웠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면서 이때 용의 비늘이 구름과 안개 속에서 번쩍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수십 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뚜렷하게 보았다. 그 마을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뿔뿔히 하늘로 올라갔다가 몇 리 밖에 떨어졌다. 혹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자도 있었다. 그 고을의 감사(監司)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다.

萬曆乙巳, 礪山地, 有白龍自江而出. 至一村家. 時白晝無一點雲, 忽風雨暴至. 霹靂乍作, 鱗甲閃爍於雲霧中, 騰空而上. 數十里內人, 皆了了見之. 其村家大小人物, 并拔去飄落于數里外. 或不知所之, 監司狀聞于朝. [<지봉유설> 권20. 금충부, 인개(鱗介) 항목]

작은 규모의 토네이도가 강에서 생겨 이동하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목격한 감사는 상세하게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용오름 현상은 많은 사람이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왕조실록>에도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전라도 관찰사가 아뢰었다. 여산 군수가 문서로 보고했다. 이번 6월 13일 16시경(申時)에 맑은 하늘 가운데서 흰 용이 나타났습니다. 꿈틀거리는 모양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를 지나자 사방이 구름과 안개로 뒤덮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바람이 크게 일어났고, 물과 불이 서로 싸웠습니다. 면에 거주하는 초관 민충일(閔忠一)의 집이 비바람으로 무너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물건이 모조리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 살 여자아이 역시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80세 되는 늙은이와 그의 처가 모두 벼락을 맞았는데 인사불성인 채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다. 변이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全羅道觀察使啓曰, 礪山郡守牒呈內. 今六月十三日申時, 清明白日, 白龍忽起. 蜿蜒之狀, 歷歷可見. 俄頃, 雲霧四起, 咫尺不辨. 風雨大起, 水火交戰. 面居哨官閔忠一家, 爲風雨所拔. 家藏之物, 盡飛空中, 不知去處. 年既三歲女子, 亦未知去處, 迄不推尋. 有八十老父及其妻, 並爲雷電所擊, 不省人事, 命在頃刻. 事牒呈, 變異非常事. [<선조실록> 권 188. 선조 38년(1605년) 6월 28일 신미 3번째 기사]

용오름 현상은 이수광의 기록과 왕조실록의 기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특이한 기상 현상에 대한 이수광의 기록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이수광은 자신이 목격했거나 타인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특이한 자연현상을 기록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였다. 1577년의 혜성은 임진왜란과 연관시켰다. 1607년의 혜성은 선조의 승하와 관련지었다. 별뿔별의 출현, 바다 거북이와 같은 특이한 동물의 출현, 개미의 전쟁 역시 임진왜란과 연관지어 해석했다. 햇무리와 쌍무지개와 같은 기상 현상은 전쟁에서 승리할 징조로 해석했다. 나무 열매가 비와 함께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연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오리 알만한 우박이나 한여름의 한파는 선조의 승하와 연관시켰다. 1605년 안변 부사로 재직할 때 일어난 홍수는 상세하게 서술했다. 같은 해 일어난 용오름 현상 역시 상세하게 묘사했다. 대부분의 이상 기상을 유교적인 재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했지만, 홍수나 용오름 현상은 단순히 피해 상황을 서술하는 데에서 멈추었다.

3. 다른 나라의 기후에 대한 소개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나라를 가능한 많이 소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기사의 원천은 <당사(唐史)>와 같은 중국 정사를 포함하여 야사의 일종인 <사문옥설(事文玉屑)>과 같은 서적이었다. 또한 “곤여만국지도(坤輿萬國地圖)”와 같은 세계지도 역시 중요한 원천이었다(정수일, 2011). 연경에서 만난 사신과의 대화도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수광이 언급한 외국은 대략 50여 개국이 된다. 이 중에서 몇몇 나라는 당시 조선의 기후와 상당히 다른 점을 주목했다.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는 대개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다. 그러므로 따뜻한 기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남국은 중국의 서남쪽에 있으며 북경과의 거리는 1만 3천 리로서 진(秦)나라에서는 상군(象郡)이라고 불렀다. 머리를 깎고 맨발로 다닌다.

安南國在中國西南. 距北京一萬三千里, 秦爲象郡, 剪髮跣足. [<지봉유설> 권2. 제국(諸國)부, 외국(外國)항목]

점성은 옛날의 임읍(林邑)이다. 본래 한(漢)의 상림현(象林縣)으로서 마왕이 동주(銅柱)를 설치한 곳이다. 사계절이 항상 뜨거운데 여름철과 같다. 서리나 눈이 없으며, 초목은 크고 푸르다.

占城古林邑. 本漢象林縣. 馬援置銅柱之處. 四時常熱如夏天. 無霜雪, 草木長青.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안남국(安南國)은 오늘날 베트남을 말한다. 베트남의 기후는 열대에 속하므로 맨발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점성(占城)은 베트남 중부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 참파(Champa) 근처로 보인다. 마왕(馬援, B.C.14-A.D.49)이 세운 구리기둥은 바로 중국의 최남단 국경 임으로 표시한 곳이라는 뜻이다. 이수광은 당시 중국의 최남단이었던 점성의 날씨가 항상 여름과 같으며 초목이 푸르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섬라국은 사방이 천 여리나 되는 나라로 바다 가운데에 있다. 여러 산들이 높이 솟아 둘러져 있다. 땅은 낮고 습기가 많으며, 기후는 바람과 더위가 고르지 않다.

暹羅國方千餘里, 在海中. 群山峭拔環繞. 地下濕, 氣候嵐熱不齊.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살펴보니 진랍국은 원래 부남(扶南)이다. 땅은 사방 7천여 리이다. 점성(占城)에서 남서쪽 바다의 가운데에 있다. 그곳은 사계절이 항상 5월 6월과 같다. 4월에서 9월까지의 매일 비가 온다. 10월에서 3월까지의 아주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

按真臘國本扶南. 地方七千餘里. 在占城西南海中. 其地四時常如五六月. 自四月至九月, 每日下雨. 自十月至三月, 絕無點雨.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만랄가의 옛 이름은 오서(五嶼)이다.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기후는 아침이 뜨겁고 저녁에 차다. 임

금은 흰 명주로 머리를 동인다.

滿刺加, 舊名五嶼. 在南海中. 氣候朝熱暮寒. 王白帛纏頭.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방갈랄은 동인도의 나라이다. 나라가 가장 크고 재물이 풍족하기가 이웃 나라 중에 제일이다. 기후는 항상 더워서 여름과 같다. 음양술(陰陽術)과 의학(醫藥)과 복서(卜筮)와 온갖 기예가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다. 역서는 1년이 열두 달로 되어 있으나, 윤달이 없다. 풍속은 소박하고 순후하며, 농사짓기를 좋아한다. 1년에 곡식이 두 번 성숙한다.

榜葛刺, 東印度也. 國最大, 財物豐衍, 甲於隣國. 氣候常熱如夏. 陰陽醫卜工技藝, 大類中國. 曆有十二月無閏. 風俗朴厚, 好耕殖. 一年二熟.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섬라국(暹羅國)은 지금의 태국이다. 이곳의 기후는 습기가 많고 더위가 고르지 않다고 서술했다. 진랍국(眞臘國)은 현재 캄보디아를 말한다. 이곳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를 뚜렷한 열대기후임을 언급했다. 만랄가(滿刺加, 말라카)는 현재 말레이시아를 말한다. 이곳의 날씨는 아침에 뜨겁고 저녁에 차다고 서술했는데, 이것 역시 건조기후의 특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방갈랄(榜葛刺)은 인도 동쪽에 있는 방글라데시를 말한다. 이곳 역시 항상 여름철의 기후가 나타나므로 이모작이 가능함을 언급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를 언급할 때에는 “기후(氣候)”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일본은 지정확적으로 가까이 있으므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일본의 전반적인 기후, 후지산의 특징, 본섬 북서쪽 지역의 풍토 등을 언급했다.

부산에서 동쪽으로 가면 일본의 수도에 도착한다. 해로로 거의 4천 리나 된다. 일본 수도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준하주에 도착하는데, 또한 천 리가 된다. 산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산(富士山, 후지산)이라고 한다. 높이가 4백여 리나 되는데, 바다 가운데에 높이 솟아 있다. 산의 반 이상은 얼음과 눈이 덮여서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다. 천 리 이내에서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

自釜山東抵日本國都. 海路幾四千里. 自國都東北至駿河州, 又一千里. 所有山曰富士山, 高四百餘里, 屹立海中. 山半以上, 冰雪嵯峨, 盛夏不消. 千里內望而見之. [지봉

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일본은 땅이 따뜻하여 얼음이나 눈이 없다. 그러나 그 북륙도(北陸道, 일본 본섬의 북서쪽 지역)는 매우 춥다. 매년 겨울이면 눈이 여러 장(丈)의 두께로 쌓인다. 또 바다 섬이 모두 돌산에 흙을 싣고 있다. 왜인들은 전적으로 흙이 깊이나 얇으나를 가지고 토지가 비옥도를 구별한다. 만약 흙이 1척 정도로 얇으면 오곡이 익지 않는다. 흙의 깊이가 7척 이상에서 한 길[一丈]에 이르면 가장 두꺼운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제주도 또한 이와 같다. 흙이 3척 깊이 되는 곳이 없다. 그런 까닭에 매년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다.

日本地暖無冰雪. 而其北陸道甚寒. 每冬雪深數丈. 且海島皆石山戴土. 故倭人專以土淺深爲饒瘠. 若土淺一尺, 則五穀不熟. 其深七尺以上至一丈爲最厚. 我國濟州亦如此. 土無三尺之厚. 故每苦旱災.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준하주(駿河州)는 현재 일본 시즈오카(静岡) 현의 중부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 있는 후지산을 소개하면서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후지산의 높이가 400 여리가 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실제로 환산하면 산의 높이는 10 리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이 기후는 일반적으로 따뜻하기에 얼음이나 눈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북서쪽에 있는 북륙도 지방은 겨울철에 많은 눈이 쌓인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와 관련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많이 토양층이 얇아서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부연했다.

이어 중국의 서쪽 경계인 신장[新疆] 근처 지역의 기후를 설명한 기사도 있다. 여기서 토로번(土魯番, Tulufan), 화주(火州, Kara-Khoja), 합열(哈烈, Herat), 노진(魯陳, Liuchen) 등은 현재 아프카니스탄에 속하는 지명이다(송정화, 2019; 정수일, 2011). 이 지역은 대부분 사막으로 건조기후가 특징이다.

토로번은 화주에서 서쪽으로 백 리 거리에 있다. 옛날의 교하현(交河縣)으로서 차사국이라고도 했다. 기후는 따뜻한 때가 많고 비와 눈이 적다. 토지는 마와 보리의 재배에 적합하다.

土魯番, 在火州西百里. 古交河縣, 亦曰車師國. 氣候多煖少雨雪. 土宜麻麥.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합열은 가옥관에서 3천 리 떨어진 곳에 있다. 사방이 큰 산을 접하고 있는데. 비가 적다. 기후는 항상 따뜻하다.

哈烈, 去嘉峪關萬三千里. 四面大山而少雨..... 氣候常暖.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화주는 한(漢) 때 차사전국 또는 차사후국 왕의 땅이다. 장안에서 9천 리를 가야 한다. 그 곳의 산색깔은 불과 같다. 날씨는 뜨겁다.

火州 漢車師前後王地. 去長安九千里. 其地山色如火. 天氣多熱.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노진의 탄 이름은 류성이다. 서역에 있는 나라이며, 큰 하천을 지나면 사막이어서 물과 풀이 없다. 말이나 소가 여기를 지나가면 곧 죽는다. 큰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사람과 말이 서로 잃어버린다. 길가에는 해골이 많고, 귀신과 도깨비가 있다. 행인이 동행을 잃으면 대낮에도 헤매다가 죽으므로 가뭄의 바다라고 말한다.

魯陳, 一名柳城. 在西域中, 經大川沙磧無水草. 馬牛過此輒死. 大風倏起, 人馬相失. 道傍多骸骨有鬼魅. 行人失侶. 白日迷亡, 謂之旱海.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명나라 초기의 서역을 여행하여 기록한 <서역행정기(西域行程記)>에 의하면, 일반적인 행로는 중국 감숙성 북서부의 관문인 가옥관(嘉峪關)을 통과해서 합밀(哈密), 노진(魯陳), 화주(火州), 토로번(土魯番)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송정화, 2019). 이러한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는 사막의 건조기후이다. 토로번은 타클라마칸 사막 가운데 있는 낮은 분지 지역으로 해수면보다도 낮다. 그렇기에 한낮에는 뜨거우며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다. 합열은 아프카니스탄 서쪽에 있는 헤라트로 역시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화주는 한자 뜻에서 느끼듯이 아주 뜨거운 곳이다. 건조기후이면서 동시에 해수면 아래에 있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서술은 사실상 중국 안의 땅이 기후가 좋아 살만하며, 그 밖에는 환경은 척박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천방(天方, 아라비아의 메카)의 옛 이름은 천당(天堂)이다. 풍속은 회회력(回回曆)을 사용한다. 풍경은 온화하고 사계절이 모두 봄과 같다. 맑은 비옥하고 벼

는 풍요하여 주민들은 생업을 즐긴다. 풍속은 선을 좋아하며 형벌이 없다. 저절로 순화되어 도둑질이 없다. 불서(佛書)에 말하는 천당이란 것은 이곳을 가리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天方, 舊名天堂. 俗用回回曆. 風景融和, 四時皆如春. 田沃稻饒, 居民樂業. 風俗好善, 亦無刑罰. 自然淳化, 不作盜賊. 佛書所謂天堂, 疑指此也.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천방(天方)은 당시 아랍의 수도 메카(Mecca)를 말한다. 아랍력을 사용하며 사계절이 온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메카를 불교에서 언급하는 천당과 연결시켜 보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은 대개 명나라 정효(鄭曉, 1499-1566)가 편찬한 <오학편(吾學編)> 등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서술한 것들이다. 계속해서 이수광은 중국의 정사인 <당사(唐史)> 등의 기록을 근거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서술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인용한 문헌에 언급된 나라들을 모두 기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정수일, 2011). 결국 이수광은 자신이 읽었거나 들었거나 확증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취사선택하여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은 유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중 기후를 언급한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여기서 이수광은 영국을 영결리국(永結利國)이라고 표현했는데, 중국 서적에는 통상 “영길리(英吉利)”라는 표기를 쓴다(오상학, 2013). 지봉 나름대로 음차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영결리국은 육지에서 서쪽 끝으로 먼바다에 있다. 낮이 굉장히 길어 밤은 겨우 이경(22시경)이면 곧 날이 밝는다.

永結利國, 在極西外洋. 晝則極長, 夜纔二更, 旋即天明.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당사>를 살펴보니, 골리간은 차가운 바다의 북쪽에 있다. 그곳은 낮이 길고 밤이 짧다. 해가 진 뒤에도 하늘빛은 석양빛으로 보일 뿐이다. 양의 갈비를 삶아서 알맞게 익을 시간이면 해가 다시 뜬다.

按唐史, 骨利幹居翰海北. 其地晝長夜短. 日沒後天色正曛. 煮羊胛適熟, 日復出. [<지봉유설> 권2. 제국부, 외국 항목]

영국은 위도가 높아 여름철에는 해가 길다. 그런데 오후 10시경이면 날이 밝는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서술이다. 그만큼 밤이 짧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해가 진 뒤에서 하늘이 석양빛을 보이는 현상 역시 하지(6월 22일경) 무렵에 태양이 거의 지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수광은 <지봉유설> 권2의 “제국부”에서는 우리나라[本國]에 이어 외국(外國)을 다루었다. 외국 항목에서는 안남, 섬라, 유구 등 본인이 직접 연경에서 만난 외국 사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일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을 언급했다. 중국 국경에서 서쪽에 있는 도시를 언급하다가 아랍을 넘어서 유럽까지 다루었다. 점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국가를 택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이 외국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를 것이므로 이러한 기후의 특징까지 언급한 세밀함을 보였다.

IV. 결 론

우리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이수광이 편찬한 최초의 유서류 <지봉유설>을 통해 기후 및 기상에 관한 그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먼저 이수광의 간단한 연보와 <지봉유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어 <지봉유설>에 서술된 기사 중 기후와 기상에 관한 언급을 추출하여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수광의 기후 및 기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의 근거는 중국의 고전이나 당시 명나라에서 출간된 저서를 인용하여 기록하면서 시작했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경우가 많다. 태양의 고도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 기상 규모에 대한 언급, 계절에 따른 바람의 차이, 계절풍의 방향, 가뭄을 대비한 기우제, 우레와 무지개 등의 현상을 다루었다.

이수광의 해석은 전통적인 유교에 기반한 정치학적 관점을 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기우제에 지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보답하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구름의 색깔로 점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관점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례에서는 의문을 제시하며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레의 경우는 일부러 죄지는 자를 벌을 주는 현상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무지개가 도랑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

히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자신의 경험과 논리적인 추론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타인의 경험을 듣고 이를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계절에 따른 바람의 차이에 대한 뱃사람의 경험을, 계절풍의 방향과 무역과의 관계에서는 조완벽의 실제 경험을 연결시켰다.

둘째, 이수광의 기록한 특이한 기상 현상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는 전통적인 재이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577년의 혜성 출현, 별뿔별, 적조 현상, 특이한 생물 출현은 임진왜란과 연결시켰다. 쌍무지개는 임진왜란 승전의 징조로 해석했다. 1607년 혜성과 여름철의 이상 한파는 선조의 승하와 관련시켰다.

이수광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특이 현상을 상세하게 기록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605년 안변 부사 시절에 일어난 홍수와 같은 해 호남에서 일어난 용오름 현상은 마치 뉴스를 듣는 듯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다만 기상 현상에 대한 해석은 덧붙이지 않았다. 특히 이수광은 다른 사람이 목격한 내용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결부시켜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강향이 목격한 털과 함께 내리는 비와 자신이 경험한 나무 열매가 섞인 비를 연계했지만, 구체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해석을 유보했다. 기이한 현상이라고만 언급하거나 어떤 징조인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여 후세 사람들이 더 연구할 소재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의 기후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의 문헌을 근거로 삼아 서술했다. 베트남, 태국, 오키나와 등의 주변국에 대해서는 이수광이 중국 연경에서 만난 사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기록하는 실증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외국의 기후에 대해서는 열대기후와 건조기후의 특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했다. 열대기후는 기온이 높아 사계절이 여름과 같다거나 우기와 건기가 번갈아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건조기후에 대해서는 중국 서쪽 경계 바깥에 있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극심한 일교차, 적은 강수량, 모래 바람 등의 특징을 서술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는 영국에 대해서 낮이 아주 길고 밤이 지극히 짧다는 사실만 언급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여하튼 이수광은 최초로 외국의 기후가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라는 기록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봉 이수광은 기후와 기상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용, 중국의 고전과 당시 도입된 명나라 도서 등을 근거로 많은 기록을 남긴 선구자였다. 전통적인 재이관에 머무른 해석도 있지만,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추론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특이한 기상 현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다. 외국의 기후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세계를 향한 호기심도 강하게 제시했다.

참고문헌

- 강민구, 2011, <성호사설>의 <지봉유설>, <송남잡지>의 <지봉유설> · <성호사설> 인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24, 495-533.
- 강민구, 2013, 유서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의 화훼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56, 39-73.
- 김문식, 2004, 이수광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진단학보, 98, 209-232.
- 김연옥, 1998, 기후 변화-한국을 중심으로, 민음사.
- 김용희, 2005, <지봉유설>에 나타난 이수광의 자연관,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노명호, 신병주, 황문환, 정재영, 한명기, 안대회, 김문식, 이병근, 송기중, 임종태, 이현희, 2004, 토론, 진단학보, 98, 301-318.
- 노정식, 1968, <지봉유설>에 나타난 지리학적 내용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4, 131-147.
- 류홍렬, 1970, 이수광의 생애와 그 후손들의 천주교 신봉, 역사교육, 13, 399-450.
- 박수천, 2016, 지봉 이수광 한시 문학의 사실과 한아 풍격, 한국한시연구, 24, 31-54.
- 반윤홍, 1975, 지봉 이수광의 정치 경제사상, 사학연구, 25, 55-82.
- 송정하, 2019, <서역행정기>와 명초의 서역, 중국학논총, 64, 57-98.
- 신상섭, 노재현, 2009, <지봉유설>로 본 이수광의 조경 식물 인식 및 가치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1-10.
- 안대회, 2004,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98, 267-289.
- 오상학, 2013, 조선 후기 세계 지리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 규장각, 43, 245-275.
- 이경희, 2011, <지봉유설>에 나타난 이수광의 세계 인식-제국부 외국조 기사를 중심으로-, 문명교류연구, 2, 225-258.
- 이만열, 1975, 지봉 이수광 연구(2)-그의 사회사상을 중심으로, 숙대사론, 15, 23-59.
- 이수광, 1970, 지봉유설(영인본), 경인문화사.
- 이수광, 남만성 역, 1972, 지봉유설(세계사상교양전집), 을유문화사.
- 이수광, 남만성 역, 1994, 지봉유설(상), (하), 을유문화사.
- 이승녕, 1970, 지봉유설 해제, 지봉유설(영인본), 경인문화사, 1-8.
- 이현희, 2004, 이수광의 국어학적 인식에 대하여, 진단학보, 98, 291-299.
- 장보용, 손용택, 2004, 지봉 이수광의 지리적 세계관, 문화역사지리, 16(1), 225-235.
- 정규식, 2018, <조완벽전>을 통한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해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양학, 39, 1-32.
- 정수일, 2011, <지봉유설> 속 외국명 고증문제, 문명교류연구, 2, 187-224.
- 정해왕, 2013, 동중서의 천인감응설과 그 정치성, 동양문화연구, 16, 185-220.
- 최병욱, 2009, 이수광의 베트남: 1595-1598, 동남아시아연구, 19(3), 31-55.
- 최웅, 2004, <지봉유설>의 한문학적 업적, 진단학보, 98, 233-266.
- 최은숙, 1991, <지봉유설>의 서지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최주희, 2018, 조선 후기 저술에 나타난 <지봉유설>의 인용 양상과 특징, 한국사상사학, 59, 133-165.
- 최혜주, 2018,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의 출판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45-80.
- 한국지구과학회, 2009, 지구과학사전, 북스힐.
- 한명기, 2004, <지봉유설>에 나타난 이수광의 대외인식-대외인식 형성의 배경과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8, 185-207.
- 朝鮮研究會, 1916, 原文 和譯 對照 芝峯類說(上), 朝鮮研究會.
- 朝鮮研究會, 1917, 原文 和譯 對照 芝峯類說(下), 朝鮮研究會.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이조판서 이수광 즐기(인조실록 19권) 등. 2020년 8월 14일 인출, 웹 주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지봉유설> 부록 권1. 2020년 9월 24일 인출, 웹 주소 <https://db.itkc.or.kr/>.
- 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지봉유설> 권1-20. 2020년 3월 15일 인출, 웹 주소 <https://db.itkc.or.kr/>.

2020년 12월 7일 접수
2020년 12월 11일 수정완료 접수
2020년 12월 11일 채택

* 이면우, 춘천교육대학교 교수(Lee, Myon U;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